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지난 1월 31일(주일) 2부 예배에는 제직 안수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재임 장로 (총 4명), 재임 안수 집사(20명), 그리고 신입 서리 집사(25명)의 임직식과 더불어, 신입 협동 장로(김길람 장로)의 임직식과 신입 안수 집사(고진수 집사)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구역장들의 헌신을 다지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날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때에 이영길 목사님께서서는 “이제 허락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으로 임직 받은 제직들의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임직, 안수 받으신 제직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 신입 협동 장로: 김길람 재임 장로: 강길원, 김성빈, 박영철, 조준호
- 신입 안수 집사: 고진수
- 재임 안수 집사: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박종열, 심윤보, 안성완, 이상자, 이재혁, 이재환, 임숙현,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 신입 서리 집사: 강민형, 강승민, 김경태, 김남숙, 김대식, 김도윤, 김래아, 김윤정, 김은주, 김재영, 김진섭, 김진홍, 김향인, 민병준, 유민재, 윤향중, 이동화, 이상정, 이영완, 이진화, 장숙량,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최정우

2월호차례

- ▣ 제직 임직 예배
- ▣ 담임목사 메세지
- ▣ 당회 소식
- ▣ 기금모금위원회
- ▣ ECC건축위원회
- ▣ 사외경의위원회
- ▣ 교육3부위원회
- ▣ 예배예술위원회
- ▣ 교인위원회
- ▣ 영어구역 소식
- ▣ 유아 세례 간증문
- ▣ 해외선교위원회
- ▣ 권사회
- ▣ 집사회
- ▣ 여선교회
- ▣ 웨마의 밤
- ▣ 남선교회
- ▣ 상록기도회
- ▣ 새애의 기도
- ▣ 그루터기 영년2부
- ▣ 애바라기 유년주일학교
- ▣ 알림/교인동정
- ▣ 고난 주간의 시
- ▣ KCB 갤러리



“먹고 남으리라” (열왕기하 4:43)

이영길 담임 목사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엘리사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기근이 심했을 때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양식을 가져 왔습니다. 그 양식을 엘리사는 백 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놀란 제자에게 말합니다. “먹고 남으리라.” 기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혁신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백 명이 나누어 먹고도 남았습니다.

려운 시기에 우리는 도리어 놀라운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고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와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 가운데 만난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고백하십시다. “먹고 남으리라.” 이 고백은 현재 전세계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생각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기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곧 이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시간입니다. 이 어

리고 사순절이 끝날 즈음,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먹고 남으리라.”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2010년 1월 당회를 김성현 장로택에서 가졌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연례 보고서를 검토, 채택하였으며 2010년도에 섬기실 부서 담당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서 위원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연례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 2009년 재정 결산 잔액 \$50,431.59중 \$50,000을 ECC 건축 기금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10년 재정 예산은 2009년과 동일한 \$925,000로 인준하였습니다.

4) 선출된 제직들의 인준이 있었습니다.

- 신임 서리 집사(25명)
- 신임 권사(1명): 김은숙
- 신임 협동 장로(1명): 김길람 장로
- 재임 장로(4명)
- 재임 안수 집사(20명)
- 신임 안수 집사(15명)

5) 공천위원 4명 선출:

- 김경애(권사회/상록회), 이성우(집사회), 노운경(마리아/여선교회), 강모나(청년1, 2, 부부청년부)
- 당회 대표로 홍경자(위원장), 강길원, 집사 회장 김태만, 이상 7명이 공천위원으로 인준됨

- 해외선교위원장: 안태준 장로
- 용자위원장: 김성빈 장로
- 교육1부위원장: 박영철 장로
- 교육3부위원장: 강길원 장로
- 재정위원장: 조준호 장로
- 부공천위원장: 강길원 장로
- 인사위원장: 홍동욱 장로
- 재정 감사: 김성현 장로
- 집사회 고문: 이정규 장로

또한, 2010년 교구장과 구역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명단은 교인위원회 보고 참조)

<정기 공동 의회 및 연례 법인체 회의 보고>

2010년 1월 10일 2부 예배 후,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정족수 이상의 참여로 정기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인준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ECC 건축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change order로 인해 인상된 모금 총액도 은혜 가운데 차곡차곡 정성껏 모아져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건축 관계자들과 우리의 건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영길 목사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는 건축이 되기를 바란다” 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당시는 기도제목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펼쳐진 우리의 건축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 할 수 없었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 것이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도로서 물질로써 그리고 건축자들의 식사대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

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혼자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었고 함께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길을 오시느라 힘이 다 쇠진 하셨겠지만 이 일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 큰 획을 긋게 될 보스톤 한인교회의 ECC건축은 드디어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학개2장9절)

<3차 모금 현황 >

금액	
총 모금 목표액	\$1050,000
납입 현금액	\$ 809,446
약정 잔액	\$ 77,200
3차 총 모금액	\$ 886,646
추가 모금 잔액	\$ 163,354

ECC 건축위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건축 기간 동안 막혔던 교회 정문 앞의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오랜 만에 정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건물 내부 벽 마무리 공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동안 이루어진 공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mmunity Center Progress:

- 1 Drywall installation and finishing continuing.
 - 1 Priming of walls continuing.
 - 1 Installation of hollow metal door frames and doors complete.
 - 1 Lighting installation in Community Center high ceiling underway.
 - 1 Electrical switch and plug installation continuing.
- Education Center and Children’s Chapel

*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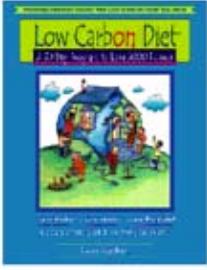
- HVAC rough-in complete with exception of tying in to air handlers.
- Drywall installation and finishing continuing.
- Light installation in Children’s Chapel ceiling continuing.

또한, 교회 본당 안에 방송실 이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롭게 생길 가족용 화장실 안에 전기와 팬 설치 공사, 배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 될 공사로는 커뮤니티 센터와 어린이 채플 안에 Drywall 설치 작업과 페인팅 작업,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 교회 정문쪽 장애인을 위한 입구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무리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축 진행 상황은 www.kcboston.org의 ECC 게시판을 통해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의 위원회/GreenKCB

주재은 집사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 아래 저희는 지난 한 해 푸른 보스톤 한인교회 (Green KCB) 운동을 통해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올 2010년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Brookline 지역은 물론

Haiti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이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우심을 나누고, 환경에 관한 전문서적을 토대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보호 실천방법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역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 10일 우리 교회는 Brookline시청에서 주관하는 “Brookline 2010”이란 지역 중심의 환경보호 운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하였습니다. 윤 경문 목사님께서 대표로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과 그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오셨습니다. 올해는 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 [<http://www.climatechangeactionbrookline.org>]이란 기관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ECC건축 완공과 더불어 Brookline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사회정의의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역을 기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월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큰 재난을 당한 Haiti를 위해 우리 교회도 기도와 성금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사회정의의 위원회에서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1월 두 주간에 걸쳐 특별헌금을 하여 PCUSA의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 We pray for Haiti”를 통해 약 4,000여불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Haiti구호 특별헌금을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자연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희 사회정의의 위원회가 술선수범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Brookline 2010의 이산화탄소(CO₂) 줄이기 운동에 맞추어 “Low Carbon Diet: A 30 Day Program to Lose 5000 pounds”란 환경서적을 토대로 좀 더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그 실천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에 걸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며, 워크샵 형식을 통해 우리 각자의 low carbon diet 계획을 세워 보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We Pray for Haiti

**God of compassion
Please watch over the people of Haiti,
And weave out of these terrible happenings
Wonders of goodness and grace.**

**Surround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ragedy
With a sense of your present love,
And hold them in faith.**

**Though they are lost in grief,
May they find you and be comforted.**

**Guide us as a church
To find ways of providing assistance
That heal wounds and provide hope.**

**Help us to remember that when one of your
children suffers
We all suffer;**

**Through Jesus Christ who was dead, but lives
And rules this world with you. Amen.**

-Bruce Reyes-
Chaw, Gradye Parsons and Linda Valentine

교육3부위원회

강길원 장로

우리가 매 주일날 바라보며 염원하고 기도드리는 교육관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영어예배부의 시간표가 바뀔에 따라서 “**2부성인 성경공부반**”을 오전 10:5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2부 성인 성경공부반”에는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들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학부모님들에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없이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인교우를 위하여 오전 10:30분에 “**1부성인 성경공부반**”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성경공부반에서는 온 교회 교우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교실 배정문제, 인도자 선정 및 교육문제등의 준비를 위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니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공부는

1. 현재 구역에서 공부하는 “말씀과 함께”를 교재로 사용하고, 구역에서는 “구역 성경공부”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 강의식이 아닌 토의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3. 성경구절을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읽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 3 세들에게 한글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들의 영어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배예술회

예배예술회에서는 2010년도에도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제직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도 기도자와 안내 위원 스케

줄을 작성하여 1월중 제직들께 발송했습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위원회

1. 지난 12월 27일 성탄주일과 1월 31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세례자: 김재은(김성준/이선희), 김재희(김택겸/강지희), 김지윤(김건철/신웅경), 김지아(김태수/김혜영), 류재영(류승열/임윤아), 민서영(민병서/박영미), 오한나(오준석/황정제), 이지우(이영완/채주영), 차예성(차민호/신민영), 최윤하/윤서(최해원/민지영), Sun하나(Robert Sun/우현중)
성인세례자: 이창범, 이현화, 장성희

2. 새 구역장 소개: 2010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 북동교구 교구장: 강길원 장로
- 북동구역 구역장: 최정열 집사
- 북서교구 교구장: 박영철 장로
- 북서 1 구역장: 박신영 집사
- 2 구역장: 최현구 집사(신)
- 중앙교구 교구장: 김길람 장로

- 중앙1 구역장: 이숙재 권사
- 2 구역장: 이경자 집사
- 3 구역장: 정하균 집사
- 4 구역장: 이정일 집사(신)
- 중서교구 교구장: 김성빈 장로
- 중서1 구역장: 권복태 집사(신)
- 2 구역장: 한문수 집사
- 3 구역장: 이유택 집사(신)
- 4 구역장: 이문영 집사
- 남동교구 교구장: 김정선 장로
- 남동 구역장: 안명훈 집사(신)
- 남서교구 교구장: 김형범 장로
- 남서1 구역장: 김동숙 집사(신)
- 2 구역장: 최창열 집사(신)
- 영어예배 구역 담당장로: 김성현 장로,
구역장: 백승한 집사(신)



간증문에 뭘 써야 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지아를 처음 가졌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임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전 아직 미국에 적응도 못했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온갖 불평과 짜증을 쏟아놓는 저에게 주님은 애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철없는 엄마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니요!
하지만, 지아를 품에 안은 순간, 순식간에 주님이 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하나님은 타지에서 외로웠을 저희 부부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것입니다.

지아를 만나고 키우면서 저는 하루하루 지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도 자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그 어떤 모습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지아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가 무슨 재미로 이 곳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나 아기를 싫어하던, 아기가 생겼다고 철없는 투정을 늘어 놓았던 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주님 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아를 통해 비로소 저는 사랑이란 것을 배워나갑니다.
이해까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 깨달아가갑니다.
내가 지아를 사랑하는 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이순간 주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지아를 돌보는 만큼, 주님 역시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아를 만나기 전 제 삶의 목표는 다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일의 성공이라든지, 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세상의 가치가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읽은 한 책에서 문구를 옮겨봅니다.
예전같았으면 스쳐 지나갔을 이 말이 유난히 제 마음에 울립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창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곧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닐런지요
-마더 테레사-*

저희 부부는 지아를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고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아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어구역 소식

지난 1월 23일 영어구역 모임이 하대준 (Johnson He)/임보라 집사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약 8가정이 참석하여 이해원 집사의 인도 아래 유익한 성경공부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발족한지 4개월째인 영어구역은 교육관 완공

후 곧 시작할 English Ministry 예배를 이끌어 갈 구역입니다. 구역의 새로운 이름도 곧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역장: 백승한)

해외선교위원회

Nicaragua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 합니다.

안태준 강로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Nicaragua 단기 선교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2월 7일(주일)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선교 일정은 7월 마지막 날인 31일(토요일)에 보스턴을 출발하여 8월6일(토요일)에 돌아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은 봉사팀 - (미용,건축),교육팀-(교사 수련회,VBS, 일대일 전도), 의료팀 약국팀, 치과팀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선교를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2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선교 단원들이 구성 되면 3월부터 준비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모임 시간에는 Nicaragua에서 쓰는 언어, 풍습, 사회, 정치, 종교 및 단기 선교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준비 상황들에 대한 교육이 있겠으며, 이어지는 소모임에서는 팀별 모임을 통해 그곳에서 펼쳐질 구체적인 선교 전략 및 방안들을 배우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11년째를 맞이하는 우리의 해외 선교를 통해 많은 선교단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매해 새롭게 늘어나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피차에 유익함을 깨닫는 믿음의 산 체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즐거움들을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함께 떠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단기 선교사가 되고자하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실 선교 계획을 같이 계획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의 글

강길원 강로



Dracut시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Mr. George Kontos씨와 그의 부인은 2,000년도 부터 10년 동안 한결같이 보스턴 한인교회의 해외선교를 성심껏 도와 왔습니다. 필요한 약품과 예방 접종약을 실비로 공급하였으며, 여러가지 약품들을 선

교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단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우리는 못가지만 여러분을 돕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며 영광이라” 고 하였습니다. 두 분은 Lowell시의 그리스 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교회에서는 두 분의 진심어린 도움에 감사드리며 그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두 분은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권사회

권사회는 1월 31일(주일) 권사회 모임을 갖고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한 해 동안의 권사회 사역에 관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2009년도 회계 잔금 \$545.00을 ECC건축 현금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렸고, 신 임원진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회장으로서는 강영숙 권사, 부회장으로는 정선주 권사, 회계/총무로는 조순래 권사께서 수

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사회는 교회 예배, 전도, 봉사, 심방등을 보조하며, 특별한 사역으로 *성만찬 준비 및 성찬보 관리, *선교 사업 협력(국내, 국외), *교역자 및 신학생 친선 모임 식사, *송구 영신 예배 특순 등 연례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으로는 이성혜 사모, 김지수 사모, 김경애 권사, 최송자 권사께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집사회

김태만 집사



우리 교회 집사회는 서리집사와 안수집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임직 받은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은 195분이 있습니다. 집사회는 당회에서 위임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친교와 선교활동을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 박성준

담당목사님과 장로 한 분이 고문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만들어진 남선교회와의 협력을 고려하여 남선교회와 같이 이경규 장로를 고문장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회장으로 수고하신 이경환, 한문수, 김준구 집사께서 집사회 전임 회장 고문단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행사와 중복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금년도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모금바자(4월), 교회 대청소(4-5월), 아버지 주일 오찬(5월), 전교인 체육대회(5월), 건축모금 골프대회(6월) 홀리스 셀터방문(6, 7월), 가을 교회대청소(10월)와 각 부서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집사회를 위해서 일할 임원 및 각 부서의 부장들을 선출했습니다. 집사회의 활동은 교회안에서의 봉사와 훈련입니다. 모든 집사님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지난 해에 맡은 일들과 교회의 다른 부서에서 맡은 일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회장: 김태만, -총무: 김우진,
-서기: 김민준, -회계: 이태호

집사회 행사의 책임자는 직분을 맡은 모든 집사들입니다. 모든 집사들이 집사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부장

- 건물관리: 이정일
- 경비안전부: 김준배/차민호
- 경조부: 김현구/김효경
- 구계부: 김동숙/이경자
- 문화부: 최현구
- 생활상담부: 김현구
- 의료부: 손영권
- 친교부: 김현주/채주영/이영완
- 도서부: 김은정/배한원
- 봉사부: 유승오/강승민
- 체육부: 백승환/이성우
- 전산부: 하대준

* 집사회 임시총회

- 시간 /장소: 2월 13일(토) 오후 6시 (교회 친교실)
- 내용: 1. 부서장 및 부서활동 소개 2. 행사계획 소개 3. 신임서리집사 환영 4.봉사할 부서 확인등.

예년과 같이 집사회 활동을 위해서 집사회 회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중 한 분만 집사님이실 경우는 \$30, 부부 모두가 집사님이실 경우는 \$50을 집사회 회계이신 이태호 집사님께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김준미 집사

1. 정기총회를 지난 2009년 12월 13일에 가졌습니다.

- 회장: 김준미 -총무: 김영순,
- 서기: 신미송 -회계: 김한나

2. 오는 2월 27일 (토)에 동북대회 주최 지교회 여선교회 대표수련회가 뉴저지의 찬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은 신년도 여선교회의 신입회장단 및 임원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여선교회원들이 지교회 외의 윗기관을 알고, 더욱 폭 넓은 지경을 넓혀가는 여성지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지길 안내하는 수련회입니다. 여선교회원으로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한나 집사에게 문의 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는 3월 6일(금)은 세계기도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제3국의 핍박 받으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교파를 초월하여 근교의 교회 여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7:30에 가질 예정입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박애리 집사

2009년 12월 6일 에스더 여선교회 정기총회에서 2010년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박애리, 부회장: 이성숙, 회계: 손주연, 서기: 변옥화, 봉사부: 김윤정, 문유경, 주민정, 김송이, 윤선미, 친선부: 김연희, 정명숙, 선교부: 강혜정, 윤희경, 문화부: 김희정 교우님들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2월 7일 예배후, 첫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들의 부서 활동 소개, 새로 완공된 지하 부역의 사용용도에 관한 논의,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010년 월별 친교담당 구역배치표가 1층 부역 냉장고 위에 부착되어 있으니 각 구역장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복도에 걸려있는 헌화/다과표에도 계획하고 계시는 교인분들은 미리 sign up하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밤

지난 1월 30일(토) 쉐마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1부가 마련한 저녁 식사(맛있는 미역국)로 3세대가 함께 식탁을 나눈 후 본당에서 쉐마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을 위하여, 환자 교인을 위하여, 그리고 ECC 건축 현장 사진을 본 후 ECC 건축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동준 집사께서 이끄시는 쉐마 찬양단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요한 목사님의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됩시다!” 제목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선교회

송년 잔치 후기

김약욱 집사

정오부터 눈이 내렸다. 소복이 쌓이는 듯 하더니만, 가는 해를 무심히 보내는 듯하다. 손을 들어 헤어짐을 아쉬워 하지는 않는 듯 했던 거다. 묵은 해는 떠밀려 갔고, 새해 경인년이 닥치듯 다가왔다.

앞치마에 장로님과 중년, 청년 집사들과, 도움을 주는 여성교회원의 모습이 조화롭다. 아이들의 움직임도 별나지 않았으며, 끓는 국물의 냄새가 그윽하고, 시장기를 부추겼다. 떡국이 채워진, 김 오르는 마알간 국물이 떡국인가, 김국인가 헷갈린다. 붉은 김치가 어울려 졌다. 일단 배고픔은 은혜를 앞서기에, 한 사발이 두 그릇 되었다. 입이 쉽지 않은 아내도 두 그릇을 비웠다. 일은 안하고, 대접만을 즐기는 듯 싶다.

자리를 펴라. 윗놀이 게임이다. 아이의 기대와 욕심에 아비도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했고, 높아지는 목소리가 말(馬)보다 먼저다. 유연하게 윗을 던지는 모습들이 기를 죽이는데 상당하다.

‘개(犬)면, 지옥이다. 길이면 천당이고, 뺨도(豚)면, 우린 망한다. 마리아로 태워라.’ 아무도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이며, 윗놀이 선수들만의 은어이고, 전문용어인 거다. 신(新)변종 말판이 흥미롭고, 윗놀이 말은 진화했고, 변종되었다.

‘잡아라, 태워라, 업어라. 나자, 지옥행이다.’ 아아,



이런 이런. 적나라하고, 걸리지 않는 기름진 말들이여. 이거 우리 교회당 맞아? 걸진 단어들이 오고 갔고, 숫구치며 부딪쳤다. 한 해를 보내는 말(言) 씻어내기 춤판이 열렸던 거다. 오고 가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았고, 윗놀이를 통한 묵은해 보내기 잔치를 보는 듯 했던 거다. 장면들은 현장 중계로 대형화면에 생방송되는 말판의 현장감이고, 생생함이 같이 왔다.

사공이 많으면, 말(馬)들은 천당으로 가기도 한다만, 여전히 막판에 지옥으로 가기도 하더라. 말(言)인지 말(馬)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구분하고자 하지 않았다. 말(馬)보다 말(言)이 먼저 갔었던 거다.

모 아니면 도다. 모와 도는 뒤집힘과 덮힘의 반발의 차이 일진대, 도와 모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거리 만큼 하늘과 땅이다. 그래도 위안은 뺨도가 아비에 감사하고, 뺨도에 단숨에 판을 엮는 우리의 역동성이요, 휘저음과 격렬한 뒤채임을 보았다. 대단하다. 단숨의 뒤집기이고, 벼랑끝 막판 뒤집힘이며, 9회말 통렬한 좌중월 역전 이루타다.

제기 차기의 경기다. 그의 바지가 당꼬바지가 되는 줄 알지 못했지만, 관객을 위한 묘기가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으며, 구경하는 나의 오른 다리가 덩달아 오르락 거림에 스스로 놀랐던 거다. 높이 숫구친 제기가 이창호 선수의 발에서 춤을 추었고, 선수는 지루한 듯 무표정하다. 그의 기술과 표현력은 거의 썰의 경지에 왔다 해야겠다. 김연아의 트리플 점프의 연기는 그의 제기차기에 비하면 택도 없다.

관중과 팬들은 제기차기도 양복에 정장구두를 정식 복식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넥타이에, 흰 셔츠가 기본 매너인 줄 알지 못했다. 골프만 점잖은 차림이 중요한 줄, 그런 줄 알았던 거다.

김주석 선수가 등장했고, 그는 양복 윗도리를 벗었으며, 그의 유연한 모습이 근사하다. 일단 차분하고, 한점 한점, 올라서는 축타(蹴打) 폼이 가볍다. 물처럼 부드럽고, 겨울 눈처럼 조용하다. 경이이며, 외경이다. 티이치 프로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았음직한 폼이고, 실력이다. 원 포인트 훈수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역시, 체계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었다.

우리 남자군의 피나는 노력은 가상하다. 일단 계기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차야 가는 것은 기본이다. 이긴 골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기가 바닥에 떨어진 다음 다리는 빠르게, 열심히 올라 섰고, 계기가 올라서면 다리는 내려갔던 거다. 하지만, 여선교회원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열성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는 천정을 찢었다.

지난 여름 줄다리기에서 패배 당한 남성팀의 간접적이다만, 통쾌한 승리인가. 현대, 이상한건, 조준호 후보선수, 하릴없이 경기장 앞 뒤에서 서성였다.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그의 그런 모습이 목격되긴 했었다.

외설과 표현과 폭소의 경계가 모호했다만, 긴장과 긴박함에, 날이 퍼렇게 선 짓궂음이 거의 상륙회 수준에 이르렀다. 한문수 MC의 퀴즈 맞추기 게임 시간이다. 아내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썰데 없는 소리 그렇게 잘하더니만, 왜 하나도 못 맞추냐’ 는 거다.

현대, 문제를 알아 들어야 답이 나오건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긴 무조건 ‘믿음’ 으로 되는 건 아니지 싶다. 답이 왜 거기서 나오는지, 왜 웃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안개 속의 갈 길이요, 어두운 골짜기의 길 잃은 양떼 되었다. 현대, 아이가 손을 들었음을 보았다. 분명 미성년자 관람 불가임에 틀림없건만, 나의 아이가 손을 들고, 답을 가져 갔으며, 당당히 비누를 손에 쥐고 돌아섰다. 애비는 ‘앵벌이’ 왕초되었다. 뭐라 해야 하나. 아이가 ‘띠동갑’ 으로 스물이 훨씬 넘었다고, 우겨야 할까 보다. ‘우리가 쓰고도 남으리라.’ 우리 가족이 쓰고도 남을 비누가 우리집 목욕탕으로 새해 아침에 들어왔다. 장하다, 고추야.

한승희, 최연일, 강길원, 김문소, 김성빈, 김형범, 조준호, 김세철, 안태준, 이정규 장로님과 권복태, 박종열, 방경남, 엄재관, 이문영, 이원걸, 이원기, 이창호, 태진수, 한문수, 존박 집사님, 그리고 김주석 총영사님의 후원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후원해 주셨다. 새로운 해를 맞이 하며, 이제 남선교회가 들어섰다. 여선교회의 일방적인 밀림에서 당당히 한 목소리 할, 남선교회가 들어 선거다. 새해 벽두에 일냈다. 남선교회의 쾌승이다만, 여전히 마리아와 에스더에게는 밀린다.



상록기도회

신영각 집사

“예수님과 함께 숨쉬자(Let’s Breathe in Jesus)” 라는 표어를 상록기도회원들의 경인년(庚寅年) 생활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본회 2대 회장님이셨던 고 김갑성장로님의 첫 추모예배(이영길 목사님 집례)를 전 상록회원이 참례 한 다음, 속개된 올해 첫 상록기도회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는 믿음”을 굳히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김갑성 장로님, 강성유 장로님(3대 회장) 따라 세상을 떠날 준비들이 바쁘니까,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 따라 성령을 새로 호흡하면(요 20:22 참조) 부활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죽지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쌓기로 했습니다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 26)”

이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위에 모든 상록회원들이 능글하고 멋있게 각자의 죽음을 멋있게 맞이할 믿음을 쌓기로 달(月)마다 말씀을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회원마다 차곡차곡 쌓기로!

새해의 기도

주영대 집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 분주한 세상일들 다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면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피할 길 없사오나, 언제나 주의 십자가는 저희에게 용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숙인 당신의 자녀들 새해 새 마음으로 간구 하옵나니, 예수님의 행한대로 행하게 하는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해케 되었듯이 내가 먼저 이웃과 세상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용서하고 용서 받으며 화목과 화해 가운데 참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진 자 된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숨겨진 비밀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복된 자녀로서 내가 진 나의 십자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중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

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랑은 나누어 주고 기쁨은 함께하며 더불어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소망합니다.

새해의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니. 아멘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시 13:5-6)

위의 시편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하나님께 믿음을 분명히 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보스톤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로서는 주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산송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봅니다. 저희 그루터기 청년2부에서는 주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인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역사하심을 체험하고자, 9개월간의 성경통독대회를 1월 18일에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에 따른 주님안에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보상을 약속

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약을 읽을때 내가 성경 안에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주역이 되었다 생각하고 신약으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되묻지 않고 사하여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내 중심적 사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깨달아 주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그루터기 청년2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탁구시설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경환 집사께서 탁구대 1대와 탁구채 3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과 이경환 집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바라기 유년주일학교

이젠 중고등부로 옮긴 아이가 어느날 작문경시대회 제목을 받아왔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겨우 열한살짜리에게는 좀 무거운 질문이었는데, 아이는 벌써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익숙해서 영어를 더듬거리는 아이를 도와 주던 유치원 선생님?

전학와서 마음이 힘든 아이에게 늘 씩씩하게 웃어 주던 1학년 담임선생님?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자신감을 잃어하던 아이에게 매일 칭찬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던 4학년 선생님??? 혹시 아빠? 설마 엄마?....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1년반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붐비는 식당에서도 느

긋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키워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교육주일에 주님께서 기뻐받으셨을 해바라기들의 헌금송을 들으면서,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주일 다음인 제직 임직주일을 맞으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새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섬기시는 교회 제직들께서 1년씩만 주일학교를 섬기신다면 어떨까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깊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는 우리 해바라기들을 그려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해바라기들을 주님의 건강한 주바라기로 키우도록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은주 집사(617-332-1950)에게 연락주시시오.

교인동정

소천;

- 고 강정현 교우가 12월 18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 고 홍동현집사(옛 교인)가 12월 24일 텍사스에서 소천, 추모예배를 1월 23일(토) 우리교회에서 가졌습니다
- 2월 6일(토, 한국시간) 이성혜 사모님 부친(고 이영덕 장로)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영정은 세브란스 영안실에 모실 예정이며, 장례 예배는 서울에 있는 대신 감리 교회에서 9일(화요일) 오전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Four

One, Two, Three, Four
 Our number that it was before
 A perfect square
 That protected itself from our nightmares
 Memories created in perfect harmony
 Ranging from long road trips
 To eagerly anticipating Toy Story 3
 Towards the end I feel as if we were led a strayd
 From our old personalities
 And you an angelic being sent from above
 Was victimized much like a dove
 However now you fly un-tethered by pain
 To the place in Gods domain
 Now four is subtracted by one
 To become the number three
 A triangle that' ll structurally support itself you see
 So now we' ll look to the past and smile
 From all the good times we had with you for a while
 While you' re no longer in the scene
 When we fall asleep
 We' ll still be dreaming of you

(홍동현 집사 큰 아들 민규(Chris)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조사로 읽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시)

알림

1. 2월 17일(수)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예배(오후 7:30분)
 이번 재의 수요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 기도, 화해, 금식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절입니다. 재의 수요일 예배에는 설교 말씀과 사순절 계율준수 초청과 재의 표식의 예식이 행해지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 많은 교우님들의 간증 및 신앙고백, 명상의 글들을 모아 만들어진 "사순절 묵상집" 이 출간됩니다.

다. 하루에 한페이지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고해 주신 많은 교우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3. 세례 교육반: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신앙 생활 전반에 관해 공부하는 세례 교육반이 3월 중순 시작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고난 주간 시

고난 주간에

시인 향로 선중관

꽃이 피는 이 계절에
한 잎 떨어지는 붉은 꽃을 보며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 때 그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오르신 골고다에
꽃잎처럼 떨어졌던 주님의 핏방울은
정녕,
이 죄인을 씻기실 붉은 선혈이었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작은 바람에 시달린 여린 싹을 보며 그만 울었습니다.
그때 그 육신,
창과 채찍에 살갓이 찢기어도
끝내 해웅을 거절하신 주님의 그 인내는
결국,
이 죄인의 죄를 지기 위한 고난이었단 말입니까?

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들처럼 무디어진 가슴을 치며 눈물 짓습니다.
그 붉은 선혈,
이 죄인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뿌리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한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시밭길 험산준령(險山峻嶺)도 마다 않고
주를 위해 걸게 하소서.

계간 『오늘의 크리스찬문학』 2004 봄호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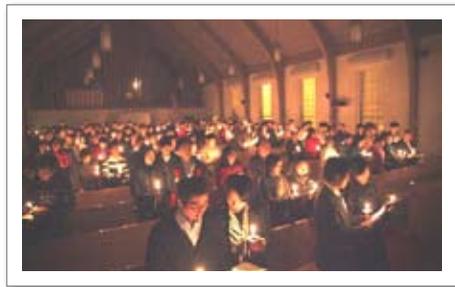
• 사랑의 바자



• 남선교회 임원회모임



• 해바라기 주일학교 성탄축하공연



• 성탄 촛불예배



• 신년 예배



• 세례식



• 중앙4구역 신년 모임



• 보스

톤 한국학교 설날잔치